

20대 총선 경쟁 치열한데... 선거사범 28% 감소 왜?

# 광주지검 선제적 단속 강화 '효과 봤다'

## 전국 29% 증가와 대조

20대 총선 대진표가 확정되고 공식 선거 운동에 들어가면서 '야당 텃밭'으로 불리는 광주·전남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후보간 경쟁이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하지만 19대 총선에 비해 오히려 선거사범은 크게 줄어 그 원인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5일 광주지방검찰청(검사장 김희재)에 따르면 4·13 총선을 10일 앞둔 지난 3일(D-12)을 기준으로 광주지검 관내(광주·

나주·화순·장성·담양·곡성·영광) 제20대 총선과 관련해 입건된 인원은 52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12년에 치러진 19대 총선 D-10일 기준 72명 대비 27.8% 감소한 것이다. 특히 전국적으로 선거사범이 29.3%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광주·전남의 27.8% 감소는 경이로운 수치다.

선거 관계자들은 뒤늦은 선거 일정과 시민의식 개선, 당사자들의 인식 변화 등을 감소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다. 여기에 수사팀을 총괄하는 검찰의 강한 의지와 역할도

한 몫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광주지검은 4·13총선에 대비해 지난 2월 총력 수사체제를 구축했다. 특히 공안부 검사를 증원하고 수사와 직원 전원을 선거범죄 단속에 투입했다.

또 농촌이 많은 지역특성상 선물이나 금품·음식물 제공 등 불법선거운동의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판단, 집중적인 감시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역별 전담검사제 실시, 지역별 특별 현장단속반 편성·운영, 고발전 긴급통보 제도도 적극 활용 중이다.

불법 징후 포착 즉시 수사에 나서는 '패

스트 트랙'(Fast Track) 시스템도 마련해 선거범죄 조기차단에 나서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선거사범은 엄격하게 처리하고 있다. 당선된 뒤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게 되면 다시 선거를 치러야 하는 등 사회적 비용 손실이 막대하다"며 "흑색·금품·불법선거 등 3대 주요 선거범죄를 신속·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선고사범 신고는 광주지검 전화 (062-231-4615·4290(야간) 또는 홈페이지(spo.go.kr/gwangju))로 하면 된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청탁 받고 음주운전 피준 경찰관 5명 정직 등 징계

지인의 청탁을 받고 음주운전 단속을 피준 경찰관 5명이 징계를 받았다.

전남지방경찰청은 음주운전 단속 중 청탁을 받고 음주운전 의심자의 음주측정을 하지 않은 구례경찰서 소속 A경감 등 3명에게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현장에서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지 않은 경찰관 2명에게는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A경감 등은 지난 3월11일 오후 3시 27분께 구례군의 한 도로에서 음주단속을 하다가 음주 감지기에 적발된 민간인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지 않고 보냈다. 이 민간인은 평소 친분이 있던 B경위에게 전화를 걸어 청탁했고 B경위는 C경위에게, C경위는 현장 책임자인 A경감에게 음주측정을 하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했고, A경감은 D경위에게 '그냥 보내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정욱기자 jwpark@



“농기계 무상점검 감사해요” 5일 광주시 남구 대촌농협(조합장 전복식)에서 열린 농기계 무상점검 행사에서 농민들이 트랙터를 점검받고 있다. 대동농기계 등 4개 농기계 제조업체가 참여한 이날 행사에서는 조합 농민의 트랙터와 예초기 등 300여대가 무상 점검 혜택을 받았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 산부인과 여의사의 불법 '이중 진료'

## 면허 빌려 광주·전남 병원 오가며 수십차례 낙태 수술 적발

“나이가 있는 부녀자들 사이에서는 수 년 전부터 A병원이 낙태수술을 잘한다는 소문이 돌았고, 젊은 여성들은 인터넷을 보고 전화나 이메일로 문의해 찾아갔어요.”

수 년 동안 광주와 전남에 있는 병원을 오가며 수십 차례에 걸쳐 불법 낙태수술(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해준 50대 산부인과 여의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 의사는 병원 2곳에서 '이중 진료'를 하기 위해 돈을 주고 은퇴한 산부인과 의사의 의료면허를 빌린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산부인과병원들이 인터넷에서 이메일을 이용해 불법 낙태수술을 상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광주북부경찰은 5일 타인의 의사 면허를 빌려 수십 차례에 걸쳐 불법 낙태수술을 한 혐의(낙태 등)로 A(여·5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돈을 받고 A씨에게 의사 면허를 빌려준 혐의(의료법 위반)로 B(78)씨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11월1일부터 2015년 7월3일까지 광주와 전남에 있는 병원 2곳에서 돈을 받고 부녀자 69명을 상대로 불법 낙태수술을 한 혐의다.

A씨는 낙태수술이 비급여 항목인 탓에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없는데도

진료기록부에 병명을 하위로 기재해 약 136만원의 요양급여를 받아 가로챘는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1990년대부터 광주에서 산부인과를 운영해온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과 남편이 원장으로 있는 전남의 한 종합병원에서 진료를 하기 위해 은퇴한 산부인과 의사 B씨에게 매달 250만원을 주고 의사 면허를 빌린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소문과 인터넷, 전화상담을 통해 병원을 찾은 부녀자들에게 35만~70만원을 받고 불법 낙태수술을 해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임신 기간이 같음에도 대학생 등 나이가 어리거나 미혼 여성들에게는 더 많은 수술비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A씨는 환자들에게 낙태수술 사유조

차 묻지 않았고, 불법 낙태수술을 숨기기 위해 모든 비용을 현금으로만 받았다.

모자보건법에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성폭행에 의해 임신한 경우,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한 경우에만 낙태수술을 허용하고 있다. 의료법에 승낙을 받아 낙태수술을 했더라도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면허를 대여해준 의사의 면허 취소도 가능하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불법 낙태가 수백 건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지만 수술을 받은 환자들이 밝히기를 꺼려 확인이 쉽지 않다”며 “인터넷을 이용해 음성적으로 낙태 상담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지검은 지난 4월 경찰이 신청한 A씨의 사전구속영장에 대해 주거가 일정한 도주 우려가 없고, 동종 전과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김경민기자kki@kwangju.co.kr

## '미취학 7남매' 중 2명 입학 첫날 잘 적응 광주시, 10남매 가정 컨트롤타워 맡기로

“행제가 많아서인지 두 아이는 정서적으로 안정돼 있었고, 또래와 비교했을 때 교사 등 어른에 대한 공격심이 깊었습니다.”

“미취학 7남매” 중 5일 초등학교에 입학한 2명은 학우들의 환대 속에 학교생활 첫 날을 보냈다.

광주에 사는 A(44)씨 부부의 10남매 중 지난해 출생신고된 13살, 14살 두 남매가 지역의 한 초등학교에 5학년과 6학년으로 입학했다.

두 아이가 배정된 학급의 동료 학생들은 생애 첫 등교를 한 남매를 큰 박수로 환영했다. 담임교사는 이날 아침 조별에서 흡스쿨링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전달해 학우들이 남매에 대한 편견을 갖지 않도록 배려했다.

두 아이는 수업에 적극 참여했다. 교사의 설명에 집중하며 궁금한 내용은 질문했다. 학우들은 학교생활이 처음인 남매에게 쉬는 시간과 방과 후 교내 곳곳을 소개했다.

같은 학교 4학년과 1학년에 다니는 다른 형제들과는 점심시간에 만나 말을 주고받았다.

학교 관계자는 “두 아이 모두 학우들과 잘 어울리고 수업에 쉽게 적응하

는 등 평범한 전학생 같은 모습을 보였다”고 전했다.

한편, 광주시는 A씨 가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컨트롤 타워’를 맡기로 했다.

광주시에 따르면 10남매의 아버지는 생활고 해결을 위한 후원금이나 생필품 지원은 원하지 않고 미취학 자녀에 대한 교육과 기초생활수급권 받아들이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시는 사회보장적 수혜금 지원을 검토하고 있으며 유관기관의 공조를 강화해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남구는 가족전담 통합사례 관리자 지정으로 각 기관에서 추진할 지원사업을 정리하고, 시 교육청은 미취학 아이들의 초등학교 입학·흡스쿨링·대안학교 입학·검정고시 지원 등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광주지역본부는 전세보증금과 생활안정자금 지원을 위한 모금을 들어갔다.

10남매 가정 돕기 계획은 농협 1057-3964-7841-62(예금주 어린이재단)이다. 문의, 어린이재단(062-351-3513-4).

/\*윤영기기자 penfoot@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 광주·전남 보복·난폭운전 121건 적발

### 46일간 특별단속...68명 입건

#. 지난달 11일 오후 5시10분께 광주시 광산구 신가동의 한 아파트단지 인근 도로에서 박모(여·37)씨가 추모(여·32)씨 차량을 500m가량 뒤쫓아가며 수차례 경적을 울리고, 추씨 차량을 앞지른 뒤 10여분간 정차해 차량통행을 방해했다. 박씨는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았던 지 밤 11시5분께 아파트주차장에 주차된 추씨의 승용차 앞유리에 음식물쓰레기와 개똥을 투척했다. 광주광산경찰은 박씨를 난폭운전·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광주·전남 경찰이 2월15일부터 지난 달 31일까지 46일간 보복·난폭운전을

집중 단속한 결과, 121건(광주 51, 전남 70)을 적발해 68명(광주 39, 전남 29명)을 입건했다. 이 중 1명을 구속하고, 위반 정도가 경미한 55명(광주 14, 전남 41명)에 대해서는 통고처분 했다.

보복운전 유형은 광주의 경우 전로변 경 7건, 경유기 울리기·전조등 상향 조작 4건, 서행운전 4건, 끼어들기 1건 등이다. 전남은 급제동·급급속 9건, 밀어붙이기 3건, 폭행·욕설 2건, 지그재그운전 1건 등이다.

경찰은 112신고, 인터넷 국민신문고, 경찰서방문신고, 스마트폰 국민제보 애플리케이션 등 다양한 경로로 난폭·보복운전 신고를 받아 대대적인 단속을 벌였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몹쓸 호기심...소화기 훔쳐 뿌리며 장난 친 고교생들



○...순간의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소화기를 훔쳐 길거리에서 뿌리며 장난을 친 고등학생 3명이 나란히 경찰서행.

○...5일 광주북부경찰에 따르면 서모(18)군 등 3명은 지난 1월12일 오후 9시4분께 광주시 북구 임동 윤모(여·32)씨의

주유소에서 15만원 상당의 소화기 3대를 훔친 혐의.

○...동네 친구인 서군 등은 이날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인근 초등학교로 이동하던 중 소화기를 발견하고 호기심 때문에 훔쳤는데, 인적이 드문 도로에서 장난삼아 서로에게 뿌린 것으로 확인.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 지리산, 온천지구내 호텔급-모텔

- 전남 구례군 산동면 관산리 732-1번지 지리산 온천지구 내 송원리조트 바로 앞
- 대지 573평, 건물 719평, 지하 1층 지상 4층, 객실 58개
- 1층- 음식점 / 숙박시설, 2~4층 - 숙박시설
- 주위에 매매물건 없음
- 관광특구로 관광자금 유치 가능
- 게스트하우스, 수련원, 연수원, 요양원 등등 적합
- 시세 / 감정가 - 15억
- 용 6억3천만원 있음, 법인체 인수 가능
- 매매-10억(일시불 대폭 조정가능)
- 리모델링 후 20억 이상 매매 가능

**산수유/벚꽃축제,수학여행,여름휴가, 등산객 등등**

**리모델링(4억)후 연 5억 이상 순수익 가능!**

주인직매 H. 010-3605-5000

**대단위 APT 밀집지역**

## 근린상가

주인직매 H. 010-3605-5000

- 광주 서구 금호동 243-6번지
- 서광병원 맞은편 4거리 코너
- 7층건물 중 701호(7층전체) 130평(실평 89평)
- 대형주차장, 4면유리, 전망최고
- 감정 / 시세 - 7억
- 매매 - 6억 2천만원
- 용자 - 3억 6천만원 포함
- 현재 보증금 1천만원에 월세3백만원 임대중

## 오천경매

- ▶ 투자/교육 등등 경매에 관한 모든 상담!
- ▶ 광주 동구 수기동 제일OP 2001호
- ▶ 예약상담 필수

대표 최선규  
H. 010-3605-5000